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57호 1판 (음력 11월 29일) 2016년 1월 8일 금요일

정부·교육청·시도의회 무책임
보육대란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젊은 엄마들 '울화통'

뉴스초점
'파행' 누리과정 예산

광주전남 의회 예산 삭감
10일 유치원 예산 지원 불가능
학부모들 "원비 내야하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 아우성이다.

부모들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울화통을 터트리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보육 대란' 이라는 시한폭탄이 작동됐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학부모 피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어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가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98억)을 삭감하면서 매월 10일 전후로 이뤄져온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한 차례 삭감한데다, 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 때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재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통상 광주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은 시교육청이 보육비 예산을 매월 10일 전후해 각 교육지원청으로 배정하면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광주 유치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사실상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만하다.

광주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2만3907명의 아이 부모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당장, 4살, 3살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1인당 29만원씩 58만원에 이르는 원비를 부담할 지 모르는 불안함에 속을 끓이고 있다.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광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는 정부, 교육청, 시의회에 대한 성토가 끊이질 않는다. 일부 유치원들 사이에서는 수업료·급식비·교사 월급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신청할 수 밖에 없지 않나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무상교육을 법령에 근거한 마당에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학부모에 돈을 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니, 교육청이 대출 알선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유치원들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운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소규모 유치원들의 우려도 있다. 전남지역 유치원의 경우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하면서 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예산(67억)을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도의회의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유치원측 판단이다. 전남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1만9983명)를 둔 젊은 엄마들이 불안한 이유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예산 지원은 유치원과 달리, 통상 20일～25일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대금을 선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돼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시·군·구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육료를 예탁받은 뒤 카드사에 이를 지급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론적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가 2개월 뒤부터 중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차가 현격해 시간적인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작동하기 시작한 '보육 대란' 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출 키를 찾아낼 때라는 게 정치권에 바라는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초부터 자살사건 급증 왜? ▶6면

新팔도유람-동해안 드라이브 ▶18면

연세대 학생들 여수서 예능기부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 6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은 첼리스트 양성원 교수의 지휘에 맞춰 연세대 음악대학과 여수 Youth(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꾸민 '예울마루 음악캠프'(4～7일)의 열기로 뜨거웠다. '착한 예술, 문화나눔'을 내건 이번 음악캠프에서 멘토로 나선 연세대 학생 25명은 여수지역 초·중·고생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개별 지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친노? "NO"…등돌린 민심이 무서워

김성곤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잔류 의원 만찬 회동 4명 만 참석
참석자 중 이개호·김승남 의원도 "지역 민심따라 잔류 여부 결정"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 잔류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많아야 3～4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 김성곤 의원이 지난 4일 광주·전남지역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에 잔류할 의원들의 만찬 회동'을 주선한 결과, 참석 의원은 강기정, 김승남, 이개호, 신정훈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이개호, 김승남 의원은 '잔류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지역 민심 등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개호 의원은 "얘기나 한 번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찬에 참석한 것이지 잔류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김승남 의원은 "지역 민심에 따라 당 잔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이윤석 의원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우 의원은 "당의 선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탈당은 어렵다. 당에 남에 야권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당분간 당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조기 선대위 구성을 통한 2선 후퇴 등 대통합의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확실하게 더민주에 잔류할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의원을 제외하고 우윤근, 강기정, 신정훈 의원 등 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중립 성향이지만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에서 단 한명도 탈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잔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손학규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이개호 의원은 잔류보다는 지역 민심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탈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주승용, 장병완, 김영록, 박혜자 의원 등도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달 내에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승용 의원 등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탈당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당 바람의 확산과 박지원 의원의 탈당 시점에 따라 당에 머물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낮 12시 전면 재개

정부, 北 4차 핵실험에 초강경
한미 정상 "강력 제재 신속 추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관련기사 2·4면〉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 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해 남북 간 긴장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신형 이동식 확성기 3대도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송은 전방 11개 지역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